

## 책 머리에

많은 국민들에게 올해 6월은 어느 해보다 우울과 절망이 아닌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시간으로 다가온 듯하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한 6월항쟁 3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에는 어느 때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진지하게 경청했으며, 이외에도 여러 단체에서 뜻깊은 기념행사를 치렀다.

돌이켜보면 지난 30년은 길거리에 자욱했던 최루탄과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던 친구들의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빠른 시간이었지만, 지난 5월의 대통령선거에서 야당 후보를 가장 많이 지지했던 20, 30대의 젊은 층에게는 6월항쟁이 일종의 신화로 여겨질 정도로 먼 과거가 되어버린 시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나이 든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 모두가 상당히 들뜬 분위기에서 6월을 맞게 된 것은, 촛불혁명의 감격이 채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6월항쟁은 1987년 초에 발생한 박종철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어이없는 국가폭력에 저항감이 4·13호헌조치를

계기로 전 국민적 분노로 전환되면서 6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폭발한 시민항쟁이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이끌어낸 대사건이었다. 6월항쟁의 열기는 전국적으로 100만 명이 함께 싸웠던 18일의 최루탄추방대회, 26일의 민주헌법쟁취 국민대행진 등에서 확인되지만, 이 열정은 6·29선언을 이끌어내면서 점차 가라앉기 시작하였고, 이한열 장례식을 통하여 성스러운 세계로 진입하였다. 6월항쟁이라는 이름 자체가 비록 그 해 7월과 8월에 진행된 민주적 노동조합 조직화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명동성당 농성투쟁, 이한열, 최루탄 추방, 평화대행진 등 지금 들어도 가슴이 뛰는 이름과 용어들로 가득 찬 밀도 있는 시간이었다.

6월항쟁 30주년이 더욱 뜻깊게 다가온 것은 무엇보다도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작년 가을부터 올해 봄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주기적으로 이루어진 촛불시위를 통해 대통령 탄핵과 퇴진을 이끌어내고 마침내 새로운 민주정부를 수립하였다는 뿌듯함이 이런 희망의 토대였다. 촛불혁명은 침몰해가는 세월호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백남기 씨 사망 사건의 책임을 추궁하며, 끊임없이 양극화되고 있는 사회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표출하고, 두 개의 강대국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정부를 불신하는 다양한 시민들이 한목소리로 외친 “이게 나라인가?”에 대한 역사적 응답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촛불을 든 공화주의적 시민들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보수적 반공주의를 외치는 또 다른 시민들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30년 전 6월항쟁에서 공화주의를 상징했던 태극기가 이제는 보수적 반공주의의 상징으로 전유되는 아이러니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연출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한국전쟁이 남긴 반공주의적 트라우마가 얼마나 치유하기 어려운 것인가를 민주주의의 성숙을 염원하는 사람들에게 과제로 던져 주었다.

이번 『기억과 전망』 제36호는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논문들을 싣게 되었다. 촛불시위와 대통령 선거가 연구자들의 시간을 빼앗아간 측면도 없지 않지만, 그보다는 논문 평가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탓에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논문들이 크게 줄어든 까닭이다. 편집위원회는 고심 끝에 논문 4편과 회고의 글 1편, 그리고 서평 2편을 싣기로 결정하였다.

김성실의 논문은 ‘한국적 민주주의’의 사상적 토대를 유교적 전통과 연결시켜 논의한 글이다. 필자는 이 용어가 해방 이후 독재정권들이 오용한 것이지만, 전통 사상에 기초한 합리성을 내포한 개념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한국적 전통 사상의 토대 위에 심어진 서구 민주주의 체제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적 민주주의 특성과 과제, 전망 등에 관한 성찰을 보여주고 있다.

이행선과 양아람이 함께 쓴 논문은 1960년대 초중반에 미국과 일본에서 베스트셀러였던 두 편의 전쟁문학이 한국에 수용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노먼 메일러의 『나자와 사자』(1948)와 고미카와 준페이

의 『인간의 조건』(1956)이 왜 한국에서 번역 출판되고 또 영화로 수용되었는가, 한국사회에 끼친 영향은 무엇이었는가를 질문하고 있다.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을 구술사를 통하여 꾸준히 연구해온 유경순은 이번 호에 실린 논문에서 젠더 관계라는 측면에서 민주노조의 유형을 다루고 있다. 청계피복노조, 원풍모방, 콘트롤데이터 노조를 사례로 하여 분석하면서,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은 성평등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일부 여성노동자들은 성차별에 저항했고, 일부 민주노조들은 여성외제를 실천하는 등의 다양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소수자 인권을 연구해온 이정은은 이번 호의 논문에서 이주민의 문화다양성 실천과 주체성 형성을 다루고 있다. 이 글은 한국사회에서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가능성을 이주민의 주체성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찾고자 한다. 경기지역의 14개 문화활동 모임의 이주민들을 면접하고, 이주민들은 한국 다문화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문화활동을 통해 그들 스스로가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회고의 글로 박석무 선생의 1970년대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증언을 실었다. 그는 『기억과 전망』 2003년 가을 호에서 최초로 전남대학교 지하신문 『함성』·『고발』이 유신 반대운동의 효시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이번 호에서는 엠네스티운동이 광주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포함하였다.

서평으로는 손호철 교수가 최근에 출간한 『촛불혁명과 2017년 체제』에 대해 오세제가 쓴 서평을 실었다. 손호철 교수의 책은 지난

촛불혁명을 ‘11월 시민혁명’으로 명명하고, 이를 ‘61년체제’, ‘87년체제’, ‘97년체제’와 관련시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87년체제’라고 할 수 있을지, ‘97년체제’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지를 다루면서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체제’라는 이름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질문하고 있는데, 이 서평은 이 책을 읽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황정미의 서평은 작년에 창비에서 출판한 『한국현대생활문화사』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10년 단위로 시대상을 다룬 네 권의 단행본을 시리즈로 기획했는데, 이 서평에서는 〈1960년대 근대화와 군대화〉, 〈1970년대 새마을 운동과 미니스커트〉를 주로 살펴보고 있다. 서평자는 이 책들이 박정희 시대가 빚어낸 통치성과 근대성에 대한 논의, 국가 중심의 기억에서 잊혀 가거나 주변화된 기억과 목소리의 재조명, 대중적 역사 읽기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기억과 전망』 편집위원회는 근래에 투고되는 논문들이 다루는 주제가 다양해지고 전문화되는 경향에 발맞추어 편집위원들을 추가로 위촉하여 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한다. 아무쪼록 이 학술지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곁에서 함께 호흡하고 늘 새로운 자극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함께 노력할 것이다. ~~다~~

2017년 6월 편집위원회를 대표하여  
정근식 씀